

2016 년 7 월 17 일(주일) 말씀과 묵상(4) "하나님 찾기"(요 17:3; 호 6:1-6)

<도입>

오늘은 매일성경에서 날마다 묻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의 중요성을 나누겠습니다.

[1] 묵상 실천

묵상이 좋은 줄 알아도 하지 않으면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지 않으면 소용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을 구입해서 매일 정해진 적은 분량의 말씀을 순서에 따라 묵상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꾸준히 6년 하시면 구약/신약을 1회 꼼꼼히 읽고 묵상하는 셈이 됩니다.

지난 세 시간에 걸쳐서 나눈 내용 복습(말씀 묵상 가이드 1번 참고).

- (1) 하나님과의 영적(인격적)으로 만나고픈 마음이 있는지 점검.
- (2) 읽은 말씀이 양분이 되어서 인격과 행동으로 나타날 것(성육)을 기대함.
- (3) 말씀 안에서 삶의 한계를 극복하기를 기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좀 더 새롭게 더 사랑하리라, 더 인내 하리라, 한번 더 웃으리라!
- (4) 내 삶의 변화를 위하여 먼저 해야할 일 중에 하나는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떤 지를 파악하는 것(평소보다 불안? 노여움? 즐거움?...). 이것은 매일 성경의 두번째 질문,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에서 적용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제 이 네 가지 정도를 너무 깊이는 말고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의 태도를 고백하십시오(1-2분 정도).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호세아서 본문이 매일 성경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가이드 2번) 본문을 2번 이상 읽기.

(가이드 3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절마다 발견하려고 애쓰십시오.

**1-3 절 (백성들이 말함)**

- 1 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다.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 어떤 하나님?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 2 절.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 그의 앞에서 살 것이다'  
→ 살리시는 하나님! 목숨만 부지하게 하는 정도가 아님. **진짜 살맛 나게 하시는 하나님!**
- 3 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분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이 임하신다.'  
→ 어떤 하나님? **새벽 빛으로 임하셔서 소망을 늦은 비를 주셔서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4-6 절 (하나님이 말씀하심)**

- 4 절. '너희의 인애가 아침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 어떤 하나님? **우리의 인애(헤세드- 자비와 친절과 사랑)의 부족을 깨우치시는 하나님.**
- 5 절.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빛날 것이다'  
→ **진리의 말씀으로 인간과 세상을 비추시는 분. 말씀 앞에서 폭로되는 세상.**
- 6 절.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 **당신을 알아드리고, 당신께로 다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

오늘 본문에서는 매 구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났습니다. 발견한 하나님을 간략하게 메모하세요. 그리고 자기 메모를 읽으면서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다음 주에 계속되는 주제. '이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라는 주제로 넘어가서 한번 더 읽습니다(가이드 4 번). "내게" 주시는 교훈이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QT 의 매력. 자신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지금 나의 상태를 내적으로(생각, 감정, 지각), 외적으로(위기, 계약/시험, 고달픈 현실, 의욕이 넘치는 상황, 이벤트...) 점검하십시오

**[2] 말씀 묵상의 열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의 삶을 더 향상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과 또 나(인간)를 알아가는 것** 위에 일어납니다.

칼뱅의 '기독교 강요' 1 장 첫 두 문장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모두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인간)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두 지식은 갖가지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중 어느 것이 먼저 오며, 또 어느 것이 그 뒤에 결과로 따라오는 것인지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이 두 개의 주제는 서로 얽혀 있으면서 또한 독립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지식이 조화롭게 통전성(서로 통해서 일치를 이룸)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통전적인 상태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 속에서 인간은 무한히 성장합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다면 하나됨의 상태에서 행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자동차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타이어와 배기 시스템이 잘 받쳐주어 완전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자동차 효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듯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으셔도 나와 하나되지 않으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나의 잠재력도 발휘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목양의 두 기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두 지식이 참되게 결합되고 조화를 이룰 때 영생의 힘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탄탄한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 결론 >**

이것을 위해 말씀 묵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라는 위대한 선물 속에서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의 길을 발견하시고,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 나눔의 질문 >**

1.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깨달은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2.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왜 중요한 일입니까? 나름대로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해 보세요.
3.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중요합니다. 최근 사무엘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